

● 제 2 편

조상의 얼과 슬기

1. 전해오는 이야기

1 - 1 도랫마을의 유래

— 형제간의 애듯한 우애로 동생이 다시 돌아온 마을 —

지금부터 약 200년전에 군포읍 당5리 이 마을에는 김씨 성을 가진 두 형제가 살고 있었다.

형은 물질적으로 부유하였고 동생은 가난하였다.

두 형제가 결혼을 하여 사는데 동생은 아들을 낳았는데 형님은 아이가 한명도 없었다.

마음씨 착한 동생부부는 형님댁이 아기 갖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밤마다 정한수를 떠놓고 백일을 정하고 기도를 드렸다.

어느날 동생의 꿈에 형님네 집 우물에서 큰 용 한마리가 머리를 쓰윽 내밀고 하늘로 솟구치더니 다시 동생네 우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아침에 깨어나 하도 이상하여 부인에게 이야기하였더니 부인도 꿈같은 꿈을 꾸었다는 것이다.

그 후로도 계속 형님이 아기갖기를 기도를 하였으나 형님네는 태기가 없고 도리어 동생댁이 다시 아기를 가진 것이다.

그래서 동생네는 큰 아이를 형님네 드리기로 하고 자기들은 땀 곳으로 이사를 가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형님은 거절하였다.

동생네는 이미 떠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아이와 함께 정처없이 길을 떠났다.

한곳에 정착하여 가난하게 살았으나 다복하게 생활했다.

세월은 흘러서 자녀들도 장성하고 이제 정말 근심걱정이 없게 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형님이 돌아가셨다는 말에 형수님 흘로 계시니 우리가 되돌아가서 다시 도와가면서 삽시다 하여 (마을로 돌아왔다) 도랫마을이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옛날의 동생의 우물은 없어졌지만 두 우물의 용(龍)이 한 우물로 모여 살고 있다한다.

이곳 도랫마을의 우물은 쌍용(雙龍)이 노는 물이라서 이 우물의 물을 먹으면 쌍동이를 낳는다는 전설이 있다.

1 - 2 광정(光亭) 마을의 유래

- 꿈에 본 빛을 정자의 이름으로 -

군포읍 산본리 443번지에 웅장하게 솟아있는 수리산 중턱에 이조 9대왕의 삼남 안양군(安陽君)의 묘라하는 묘가 있다.

옛날부터 이 안양군의 묘를 지키며 살아온 옥담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무예를 좋아하여 활쏘기, 칼쓰기는 남보다 뛰어났으며 사냥을 업으로 삼고 살았다 한다.

그는 나이가 차서 성년이 되면서 무예가들의 훈련장으로 좋은 이곳에 활터를 만들기로 하고 근처 무예가들을 불러 연습을 연마하고 풍류를 즐길 행락장소를 마련키로 하여 재물을 모아 공사를 착공하여 정자짓는 일을 계속하던 어느날 옥담의 꿈에 정자터에 찬란한 빛과 함께 우아한 정자의 모습이 나타나매 길조라 생각하고 무예가들과 협의하였다.

세월이 흘러 정자가 완성되어 이름을 구하던 중 꿈에 본 빛과 함께 정자를 생각하여 광정(光亭)이라 불렀다 한다.

그리하여 지금도 이마을을 광정이라 부르고 있으나 현재는 정자도 없고 묘만 쓸쓸하게 자리하고 있다.

1 - 3 감투봉(巔頭峰)에 얹힌 이야기

- 두 용이 승천하려 서로 싸웠다는 이야기 -

군포읍 부곡리에는 마치 감투처럼 생긴 봉우리가 두개 있다.

생긴 모양이 감투같다 하여 부탁 사람들은 감투봉이라 부른다.

그런데 이 감투봉에는 슬픈 전설이 있다.

고려시대 지관(地官)을 지내던 꽈씨 성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여쁜 딸이 있었는데 파견하여 이웃마을의 주(朱)씨네로 출가하였는데 시부모님 봉양 잘하기로 근동에 소문이 자자하였다.

어느날 친정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친정으로 향하였다.

그녀가 친정마당에 도착하여 방으로 들어가려 할 때 아버지는 자식들을 모아놓고 유언하기를 내가 죽거든 “서북쪽 높은 산봉우리에 가면 흰나무 세그루가 있는데 그곳에 나를 묻어다오”라고 유언을 했다.

딸은 그곳이 명당인 것으로구나 하고 생각하며 시치미를 빼고 방에 들어가 아버님께 병문안을 올리고 며칠을 병간호를 했다.

그녀의 효성이 지극한지 친정아버지의 병세가 호전되자 그는 시댁으로 돌아와 친정에서 들은 명당이야기를 명심하고 시아버님 봉양을 하던 중 갑자기 시아버님이 병을 얻어 눕게되자 그녀는 백방으로 의원과 약을 구해다 치료에 애썼으나 애석하게도 운명하였다.

이때 그녀는 전에 친정아버지에게서 들어 두 흰나무 세그루가 있는 명당으로 시아버님을 모시기로 하고 그곳에 오빠 몰래 묘를 만들어 시아버지를 모셨다.

그 후 얼마후 친정아버지도 병이 재발하여 세상을 달리하였다.

이때 아들들은 전에 아버지가 말해둔 명당으로 아버지를 모시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때부터 매일 새벽이면 먹구름과 함께 천둥번개가 번쩍이며 큰 용 두마리가 그 산봉우리에서 싸우는 것이었다.

그제사 누이의 시아버지를 자기 아버지와 같은 장소에 장사 지낸 것으로 알고 누이에게 시아버지의 이장을 권유하였으나 막무가내였다.

그러자 큰 아들이 결심하여 가슴에 낫을 품고 두마리 용중 한 마리를

없애기로 하고 산소에 가 제사를 지낸후 새벽에 그 산봉우리를 향하였다.

그날도 어김없이 천둥번개가 요란하게 치며 두마리 용이 처절하게 싸우기 시작했다.

이때 큰 아들이 어울려 싸우던 두마리의 용중에서 한마리를 베어 죽였다.

그러자 싸우던 용이 조용해지고 죽어버린 용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변하여 누워있던 것이다.

이후로부터 그 산봉우리를 서로 용이되어 승천하려 서로 싸웠다 하여 깁투봉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그후 주씨네는 부유하게 살았으나 후손이 적었으며 반대로 꽈씨네는 자손이 귀하였다가 후에는 자손들이 번창하였다 한다.

1 - 4 변시촌(邊氏村)의 유래

조선말기 5대독자로 자란 변씨 내외가 살고있었다 이들은 선조때 부터 자손이 귀하여 늘 자녀 많은 집안을 부려워 하였다 집안에 자녀가 없으니 늘 쓸쓸하고 고독하였다.

자손이 없으니 후에 저승에 가서 조상님들을 어떻게 뵈을 것인가 하면서 늘 탄식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물맑고 경치좋은 명산을 찾아 다니면서 지성을 드리며 자손 얻기를 소원했다 좋다는 약은 다 구해서 먹으며 별 일을 다하였으나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여기 저기 돌아다니던 중 물 맑기가 유리와 같고 산수가 수려한 현 군포읍 부곡리 부근에 당도하게 되었다 여기서도 지성을 드리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들은 길가에 주막을 차려 놓고 길가는 손님들을 접대하면서 생계를 꾸려 나갔다.

그러던 어느날 부인이 잠깐 잠든 사이에 귀한 선비 한분이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희들 소원을 들었노라. 너희 정성에 내가 탄복하였구나” 하면서 다음과 같이 알려 주었다.

“지금부터 150일 동안 몸을 정결히 하고 깊은 동굴속에서 사람과 일체 만나지 말고, 두 부부가 정성스레 기도를 드리면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다” 하고는 홀연히 떠나갔다.

이 두 부부는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고 힘들고 고달팠지만 오로지 자손을 얻겠다는 일념으로 정성껏 기도를 드렸다.

시간이 흘러 이제 150일이 지나게 되자 이상하게도 부인이 아기를 갖게 되었다. 이들의 기쁨은 말할수 없이 커졌다.

이제 저승에 가서도 조상님들을 떳떳이 볼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하면서 기뻐했다. 그후 4남2녀를 낳아 5대독자를 지내던 가문에 큰기쁨이 되었다 그리고 서로 도와가며 살아 지금은 자손이 번창하였다한다.

1 - 5 용호(龍虎) 마을에 얹힌 이야기

고려말 용천(龍天)이라는 마을과 호지(虎地)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조그만 계곡을 사이에 두고 서로 모략하고 혈뜯으며 종종 싸우기가 일쑤였다. 용천이라는 마을은 그 모양이 마치 용(龍)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듯한 모양을 하고 있었는데 말 그대로 서로가 용호상박의 형국이었다. 용천마을은 용의 기세로 호지마을은 호랑이의 기세로 서로 추호의 물러남도 없이 당당한 기세였다.

그러던 어느날 호지 마을 측에서 화해를 하자는 전갈을 보내왔는데, “지금 용천 마을 장(長)께서 우리 호지 마을로 급히 오셔서 서로 도와 가면서 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봅시다.”라는 내용이었다. 이를 받아 본 용천마을 장(長)은 크게 노하여,

“절대로 그런 제의를 받아 들일 수 없다.”

라고 회신을 보냈다. 호지 마을에서는 크게 실망하여 잠도 제대로 이를 수가 없는데 어느날 꿈에 흰수염의 도사가 나타나서 말하였다.

“내일 아침 동이 트는 즉시 동남쪽으로 가면 커다란 고목나무가 있을 터 이니 그 고목나무의 잎사귀 하나를 따서 발로 밟도록 하라.”

다음날 아침 일찍 호지마을 장이 그곳에 가보니 파연 큰 고목나무가 있었다. 그래서 잎사귀 하나를 따서 밟았더니 갑자기 흰 연기가 솟구치면서 연기속에서 공교롭게 용천마을 장이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전에는 내가 미안했소. 어제밤 꿈에 도사님이 나타나시어 이곳까지 오셨군요. 우리 힘을 합쳐 살아갑시다. 마을 이름을 이제 龍虎라 하는 것이 어떻겠소?”

이리하여 용천마을과 호지마을은 서로 협조해 가면서 살아가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용호마을이라고 전해 내려오고 있다.

1 - 6 오봉산 기슭의 명당

—어머님 묘소를 100일 기도로 명당마련—

의왕읍 고천에 부곡으로 넘어가는 고개 못미처 오른쪽으로 봉우리가 5개 있는 높은 산이 있어 이름하여 오봉산이라 일컫는 바 경관이 수려하여 등산객이 줄을 잇고 있다.

이산 기슭에 이조 역대에 걸쳐 정승판서를 낸 명당이 있으니 이조 숙종때 이조판서를 지낸 청풍김씨 인백(仁百)의 정경부인 안동권씨의 묘이다.

안동권씨 사후 6대 정승이 그 집안에서 배출되었으니 가히 명당이 아니랴 이 산소 자리는 본래 함양박씨 선조의 집터로 다음과 같은 유래가 구전되고 있다.

인백의 아들 극형(克亨)은 평소 효자로 인근 수십여리에 걸쳐 칭송이 자자한 인물이었던 바 위로 두 형님이 요절하자 부모님을 극진히 봉양하며

충효를 인륜의 대근간으로 삼고 살았었다.

그러던 중 어머님이 노환으로 돌아가시자 가매장을 하고 이어 어머님 산소자리를 찾아 수산을 헤매었으나 뜻이 이루어지지 않자 집에서 정한수를 떠놓고 100일 기도를 작정하고 자정이면 어머님을 편히 모실 묘소가 마련되길 기원하며 노심초사하던 중 하루는 과객 2명이 석양빛을 받으며 문전에서 하는 말이 하루밤만 유숙하고 가게 해달라는 청을 받고 극형은 보시다시피 나는 상중이고 집안도 빈한하여 대접할 만한 음식도 없으니 어쩌면 좋으랴? 하는 말에 과객은 그저 하루밤만 쉬어가게 해주면 고맙겠다고 다시 간청하자 극형은 손님을 안내하여 집안으로 들어고 죽을 쑤어 대접하며 장거에 노독이 심할테니 우선 요기라도 하시고 편히 쉬십시오 라는 인사말을 남기고 안방으로 건너가 손님이 잠잘때 쯤해서 자정에 또 기도를 드리러 밖에 나와 기도를 한후 방으로 들어 가던 중 손님이 자지않고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문연히 들게 되었는데 그 말인즉

“여보게 자네 아까 보았지” 그 박씨네 장독대말이야 아주 훌륭한 명당인데 참으로 아깝네 그려.” 그러게 허나 지성이면 감천이라는데……

이러한 말을 들은 극형은 이튿날 손님들을 대접하여 보내고 나서 곰곰 생각하니 그 박씨라는 사람이 다른 아닌 자기와 세교하는 친구이므로 난처한 입장이지만 어머님을 생각하고 친구네 집으로 가 사정하길 “여보게 내가 진히 청할 말이 있는데 자네의 도움없이는 이를 수 없는 일이라 상중임에도 불구하고 찾아왔네 꼭 부탁좀 들어주게” 하며 청을 하자 친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도저히 이를 수 없는 청이라 심히 괴로우면서도 좋은 말로 거절하니 극형이 낙담하여 집으로 돌아갔다가 그 이튿날부터 친구네 집 마당에 거적을 깔고 상주하다 싶이 무언농성을 하던 중 광주현감이 조상차 찾아왔다가 상주의 행적을 묻고는 박씨네로 찾아가 사정을 알고 보니 심히 난처한 지라 극형에게 너무 과욕을 말고 달리 방도를 구해보게

하며 박씨에게 가서 극형의 청을 해보자 일언지하로 거절하니 현감도 할 수 없이 관아로 돌아가고 극형은 방갓쓰고 포망으로 얼굴을 가린채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현데 그 순간 박씨네 집이 원인모를 불로 순식간에 타 버리고 재만 남게 되었으니 박씨 생각에 이것은 천운이니 내친구를 위하여 하늘의 지시로 받아 들여야 하겠다고 생각하며 하인을 시켜 극형에게 장삿날을 택일하여 어머님 장례를 모시도록 하라고 이르니 하인이 달려가 본 즉 극형은 심히 낙심한 관계로 허탈한 발걸음을 옮기며 집으로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인도 심히 불쌍하게 생각하며 집주인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전하자 극형이 지극히 고마워하며 어머님 장례를 모실 수 있었는데 그 자리가 바로 함양박씨 선조가 살던 극형의 친구네집 장독대 자리라 하는바 극형의 지극한 정성에 하늘이 감동했다는 말이 있으며 장삿날에 극형의 집에 유숙했던 과객이 나타나 자기는 박상희라는 지관이라 소개하며 장사 절차를 돌보았다는 일설이 있으며 박상희는 당대의 유명한 지관이었다 한다. 그리고 묘자는 금계포란 형으로 마치 닦아 알을 품고 있는 형상이라 하는 명당이라 한다.

1 - 7 주필행궁(駐蹕行宮)

효심이 지극했던 이조 정조대왕은 부왕(父王) 이신 장현세자의 능을 양주에서 화산으로 옮기고 배능행차(拜陵行次)를 자주 했었다.

그 당시 한양(서울)에서 화산능까지는 우리의 리수로 140리였으며 이를 90리로 공인(公認)했다. 당시의 궁중 법도는 임금이 도성(都城)에서 백리밖을 벗어날수 없어서 억지로 90리라 부르게 한 것이다. 즉 한양에서 과천의 남태령까지 70리고 과천에서 수원이 70리였으나 정조대왕의 효성으로 90리라 부르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지금도 과천에서 수원은 20리라 부르게 된 것이다. 어쨌든 140리길을 멀다고 않고 정조대왕은 늘 능행을 자주했는데

이때 생긴 말이 「모처럼 능참봉에 한달 거동이 29번」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임금님의 능행이 많았었다.

이때 능행시 잠시 쉬어 가시던 곳을 주필행궁이라 불렀으며 그 당시의 건물이 지금의 의왕읍 청사의 자리이다.

이곳은 서울과 화산등의 중간정도로 한양에서 능행차 출발한후 이곳에서 시간적으로 점심을 들게 되는 지점인 것이다.

일설에 이 주필행궁을 짓기 위해 남한산성에서 아름드리 나무를 베었는데 그당시 굵기가 한아름이나 되는 구렁이가 나와 도로에 구렁이 자국을 내었다하여 지금도 오래된 벼드나무가 읍청사 옆에 위용을 자랑하고 있는바 당시에 말을 빼어놓았던 나무라는 말이 있다.

1 - 8 “능참봉 하자마자 거동이 스물아홉번”

옛 조선 정조대왕때의 이야기다.

효성이 지극했던 정조대왕은 한양에서 경기도 화산의 부천의 능을 하루도 거르는 날이 없이 배능행차를 하였으니 어쩌다 능참봉의 벼슬에 오른 사람이 힘들었음을 일컫는 말로 “어쩌다 능참봉 하자마자 거동이 29번”이란 말까지 생기게 되었으니 돌아가신 부친에 대한 정조대왕의 효성이 지극하였음을 가히 짐작할만 하다.

이런 이유로 능참봉의 일이란 조그만 실수도 있어도 않되고 오직 능지키고 관리하는데 온 정신을 쏟아야 했던 것이다.

옛날 능행때 일기가 불순하여 억수같이 비가 내리는 날이면 한양까지의 환궁이 어려워 날이 갤때까지 중간에 쉬어 가는곳이 있었으니 이곳이 바로 지금의 의왕읍 사무소 자리에 있었던 주필행궁이다.

이곳에서 유숙하시던 날엔 정조대왕은 밤을 뜯눈으로 지새어 돌아가신 부모님의 생각을 하고 눈물을 흘렸으며 이때 비바람의 평계로 능참봉이 직무를 소홀히 할까하여 같이 수행하던 대신을 시켜 확인하는 일이

자주 있었으니 능참봉하기도 여간 힘든게 아니었다.

어느날도 한강이 홍수로 범람하자 주필행궁에서 유숙케 되었는바 신하를 를 시켜 능참봉의 동태를 살피되 잠을 자고 있으면 그자리에서 목을 벨 것이요. 만약 잠을 안자고 누워 있으면 압송해 오라는 분부를 내리고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날 능참봉에게 객중이 말해주기를 “이달 그믐에는 아무리 천지가 개벽할듯 뇌성병력이 치고 비가 쏟아져도 굴건 제복을 갖추고 능에 엎드려 있어야 목숨이 부지되리라”하고 전해주어 그렇게 실행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때 신하가 와서 확인해보니 능에 엎드려 있는지라 대신은 대왕에게 그렇게 고하자 대왕은 매우 기뻐하시며 능참봉에게 후한 상을 내렸다 한다. 그후 정조대왕은 충직한 능참봉으로 인하여 배능행차의 횟수를 줄였다하여 왕이 신하에게 은혜를 베푼곳이라 하여 이고장을 사 은혜 또는 사그네라고 부르게 되었다 또한 왕이 행차를 자주하여 머물던 곳이라 하여 현재의 왕곡리를 왕립(王臨)이라 부르기도 한다.

1 - 9 “옻우물” 마을

옛날 전주동(全州洞)에 두 이생원(李生員)이 서로 이웃하여 의좋게 살았다고 한다.

주의의 산천 경계가 수려하고 오곡 백과가 무르익어 인심이 샘솟듯 하였으며 후덕한 정은 삼천리 금수강산 어디를 가도 한결같은 태평성대의 시절이었다.

그러나 이생원은 벌써 오래전부터 어두운 그늘이 온 집안을 감싸고 있었다.

다름이 아니라 사랑하는 어린 아들이 이름모를 피부병에 걸려 앓아 누웠기 때문이었다.

사랑하는 아들이 이름모를 병에 걸려 누워있으니 일도 손에 안잡하고 수심에 싸인 얼굴로 이웃 친구들을 찾아 치료 방법을 묻고 상의하는게 제일 크고 중요한 일이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그해에는 유난히 가뭄이 심하였던지 먹을 물 조차 귀해 십여리나 떨어진 산골에서 겨우 한초롱씩 물을 떠다 식수로 사용하는 처지였으나 이생원은 유명한 의사를 부르기도 하고 백방으로 약을 구해 치료했으나 별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어느날 길가던 중이 이생원의 집에 들러 시주를 요구하였다.

그 중의 행색을 보니 못생긴데다 오랫동안 세수 한번 안한듯 초라하고 더럽기가 짹이 없었다.

그러나 본래 인심이 좋은 이생원은 먹을 물도 귀한때인데도 깨끗하게 셋겨주고 푸짐한 식사를 대접하니 그 길가던 중은 고맙다고 절한후 생원집을 떠났다.

그런데 길가던 중은 이웃의 이생원집에 찾아가 말하기 이곳은 물이 귀한 지형으로 물이 귀하여 피부병이 있으니 내가 이곳이 올때 지팡이를 꽂아 좋은 곳이 있는데 그곳에 우물을 파면 물이 사시사철 넘칠 것이요. 그 물로 목욕을 하면 피부병에 깨끗하게 치료될 것이라”하고 사라졌다.

생원은 친구의 덕이 높고 인정이 많아 하늘이 내려준 복이라 여기고 친구에게 알린후 행려승이 알려준 곳을 찾아 우물을 파니 물이 귀했던 마을이었는데도 다섯자도 못파서 물이 콸콸 솟아 났다. 물맛 또한 좋고 그 중이 시킨대로 그 물로 피부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목욕시키니 거짓말 같이 깨끗하게 낫게 되었다. 그로부터 우물에 대한 소문이 온동네에 자자하게 되자 피부병을 앓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 효과를 보았으며 특히 옷으로 인한 피부병은 잘 낫다하여 이 우물을 옷우물이라 부르게 되었다.

그후 동네 이름조차 옷우물이라 부르게 되었으며 현재의 의왕읍 오전 3

리 132번지 부근인바 십여년 전 까지만해도 이 우물이 있었으나 지금은 흔적도 없어져 안타까울 뿐이다.

1 - 10 계란마을

이조 중엽 하정승(하연)의 묘를 안착시키기 위하여 풍수지리에 능하다는 수십명의 지관을 초청 명당자리를 찾게 했으나 몇달이 걸려도 찾지 못하던중 몇명의 지관이 신천 6리 근처에 명당자리가 있다하여 그자리에 계란을 놓았는데 하루가 지난 다음날 이른 새벽에 병아리 울음소리가 들려 마을 주민들이 가보니 전날 계란을 놓았던 곳에서 병아리가 깨어나 이곳이 명당자리라고 일컬었으며 그후 현 소래읍 신천 6리를 계란마을이라고 부르고 있다

1 - 11 금바위 마을(소래읍 은행리)

이조시대에 장마가 계속되던 때에 하루는 비는 그쳤으나 안개가 끼어 한 치의 앞도 내다 볼수 없을때 별안간 온마을이 밝아지면서 서광이 비치는 것 같아 알아본 즉 마을뒷산의 바위들이 금빛을 확산하고 있었다 그 후 이마을를 금바위라 하였다

1 - 12 마산봉(魔山峰)에 얹힌 이야기

— 힘자랑하다가 아들, 딸을 죽인 마귀할머니 —

삼한시대 수암면 산현리의 높은 산봉우리에 마귀할머니가 동굴에서 살고 있었다 한다

그 슬하에는 장성한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마귀할머니를 닮아 힘이 장사였다고 한다 그런데 그 산봉우리에 마귀할머니가 사는 동굴 앞에는 집체만한 바위가 버티고 있어 동굴출입에 많은 지장을 주었다.

어느날 마귀할머니는 아들과 딸을 시켜 그 바위를 굴려버리라고 했다.

그러나 원체 큰바위 덩어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이센 장사라도 이 남매의 힘으로는 어쩔수가 없었다.

마귀할머니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아들, 딸을 호령호령 하며 쥐잡듯이 몰아세웠다. 남매는 화난 마귀할머니가 무서워 온갖 사력을 다해 그 바위를 밀어 넘기기 시작했다. 그러기를 한달동안 바위와 싸름하는 남매에 대해서는 마귀할머니는 무관심 했다

그러던 어느날 조금씩 그 바위를 밀어 내던 남매는 마지막으로 죽을 힘을 다해 힘을 쓰자 바위는 우뢰같이 소리를 내며 밑으로 굴러 떨어졌고 그 남매는 기진맥진하여 그자리에 쓰러져 잠이 들었다.

심술궂은 마귀할머니도 작으마한 인정은 있는지라 그제서야 쓸어진 남매에게로 달려가 흔들어 깨웠지만 원래 지쳐버린 남매는 일어날줄 모르고 아주 영영 저 세상으로 깊이 잠이 들어 버리고 만것이다

마귀할머니의 절망은 말할수 없었고 마귀할머니는 그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대성통곡하기 시작했고 내내울다가 지쳐 마귀할머니도 그자리에서 죽었다고 한다.

그러하여 마귀할머니의 이름을 따서 마산이라고 부르고 있으나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 동굴은 메워 졌다고 한다.

1 - 13 三千병마골 피흘고개

수암면 조남리에 위치하고 안양에서 서쪽으로 상거(相距) 약 20리인 곳으로 임진란시 방어군 총지휘관 신립장군이 산하군 병마를 근처 골짜기에 잠복시키고 약 1키로 떨어진 왜군의 포진지를 공격할때 모책(謀策)으로서 노부인은 정탐하기 위하여 적진에 침입캐하고 그 암호로서는 야간을 이용하여 취침여부를 살펴 다 자면은 “다자귀야” 하고 잠이 들지를 않았다면 “더자귀야”로서 암호연락 총공격하여 왜병을 격침시켜 그 피흘음이 내를

이루었다하여 이고개를 피흘리 고개라 하고 따라서 이 골짜기를 三千兵馬 골이라고 한다.

지금도 당시 전사한 아군의 무덤이 남아 있다.

1 - 14 군자봉 (君子峰)에 얹힌 유래

—심술궂은 노인에 대한 이야기—

옛날 군수의 한마을에 사는 유(柳)씨가 집안을 이루어 14형제 모두가 조정에서 큰 벼슬을 할만큼 권세가 당당하였다 한다.

유씨 종가택에 한 심술궂은 노인이 살았는데 인심이 고약할 뿐 아니라 심술이 콧기로 동리뿐만 아니라 인근에까지 소문이 나 있었다.

하고 한 날 착한 동리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 집안에 있는 종들을 못살게 죄었다.

하루는 이 심술궂은 노인이 집안에 있는 한 종에게 매질을 봅시 심하게 하여 매에 못이긴 종은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말았다.

이때 16살 먹은 종의 아들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그 길로 걸을 떠나 이곳 저곳을 거령뱅이로 전전하다가 강원도 금강산 어느 절에 들어갔다.

절에 들어가 잔심부름을 하며 여러해를 지내니 매사 행동이 범상치 않은 지라 어느 날 그 절의 스님이 종의 아들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기다렸다는 듯이 총각이 대답하되 지술(地術)을 배워 지관(地官)이 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후 어느 날 스님은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었으니 길을 떠나 세상에 나가 지술을 활용하여 중인을 깨우치라 했다.

그길로 총각은 자기가 살던 옛집으로 찾아와 사랑채에 머물렀다. 십여 년이 지난 후라 그 집에서는 아무도 그 총각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총각은 그 집안 식구 및 동리 사람들을 전부 알아 볼 수 있었다. 그중에는 옛날 자기 아버지를 때려 죽인 그 심술궂은 노인도 있었다.

저녁상을 물리고 사랑방에 앉아서 노인과 동리 노인들과 함께 이야기
저 얘기 오고 가다가 이 총각은 산소자리에 대한 얘기로 말머리를 돌려
앞산의 유씨 조상묘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 냈다.

유씨 조상묘가 그야말로 명당중에 명당인데 한가지 흠은 앞쪽에 “군자
봉” 산봉오리가 세자세치만 낮았더라도 유씨집안은 지금보다 더 부귀영화
를 누릴 수 있을 것을 참으로 아깝다고 혼자소리처럼 놔까렸다.

이 이야기를 들은 유씨 가문에선 권세와 세도가 하늘을 찌를 듯하니
군자봉 봉우리 3자 3치 낮추기는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쉬운 노릇이었다.

날이 밝기를 기다려 인근 백성을 동원하여 한나절 안에 봉우리를 3자
3치를 깎아내려 버렸다.

총각은 이에 그치지 않고 산소밑에 있는 신도비(거북비)를 산소 쪽으
로 10자 끌어 올리고 산소옆에 있는 「벌바위」를 깨뜨려 버리되 내가 떠난
지 한나절 후에 시행하라고 이르고 그 다음날 일찍 총각은 길을 떠났다.
그후 총각이 일러준 대로 신도비(거북비)를 10자 위로 끌어 올리니 거북
이의 발이 위치한 곳에서 선혈이 쏟아졌다.

또한 벌바위를 깨뜨리니 왕벌 2마리가 바위틈에서 튀어나와 총각이 간
쪽을 향하여 날아갔다.

한편 총각은 그길로 김포 나루터로 가 용가마(무쇠솥)를 뒤집어 쓰니
왕벌 2마리가 날아와 총각이 뒤집어 쓴 가마솥을 빙글빙글 돌면서 무쇠
솥을 벌침으로 쏘기 시작했으나 한참만에 왕벌 2마리는 기진해서 죽어버
렸다 한다.

총각은 솥에서 나와 김포나루를 건너 어디로 사라져 버렸고 그 이후
유씨 집안은 권세가 차츰 기울기 시작했다 하며 지금도 군자봉은 당초
보다 약 3자 3치 정도 낮아진 것처럼 보인다 하며 묘비에 있던 신도비도
산 아래에 떨어져 있다 한다.

1 - 15 흄뿌리 우물에 얹힌 이야기

—꿈에 신령이 나타나 동리를 구한 촌장—

약 400여년전 전주이씨가 군자면 장곡 1리에 정착하여 마을을 이루고 살았는데 원래 부락명은 배모양으로 생겼다하여 “배형국”이라 하였다고 전해온다

그런데 이마을 안에 우물을 파고 식수로 쓰면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 죽고 또 도둑이 심해서 자연히 동네가 망해가곤 했다.

그래서 마을사람들이 고심하던중 어느날 이마을의 촌장꿈에 신령이 나타나 “배형국”이란 마을명을 해명해주며 “배안에다 우물을 파니까 배가 가라앉을 수 밖에 없지 않느냐”하고는 사라져 버렸다고 한다. 촌장이 깜짝놀라 깨어보니 꿈이었다.

촌장은 고심하던 중이라 하도 기이하고 신기해서 동네사람들과 의논한 끝에 마을내에 우물을 모두 메우고 동네를 벗어난 지역의 흄뿌리에 우물을 파서 식수로 쓰니 동네에 우환이 없어지고 도둑도 자취를 감추어 살기 좋은 동리가 되었다고 전한다.

1 - 16 현덕왕후의 능지 및 관우물

—군자면 목내리 산47번지 —

군자면 목내리는 일명 궁안(宮內)라 부른다.

이곳 산 47번지에는 조선조 단종의 생모인 권씨의 능지가 있었다.

바로 현덕왕후의 능지이다.

이능은 세조때 파손되었는데 수년전 현재의 산주가 능지에 묘를 쓸때 땅 속에 파묻혀있던 돌 해태 한쌍을 파냈다하나 유실되어 없어졌다고 동리 사람들은 말하고 있다.

1978년 8월 반월 신 공업도시 개발지구내 문화재 발굴 조사단이었던 단국대학교에서 이곳에 대한 부분적인 발굴 조사를 하여 이조시대 능묘호석(陵墓護石)의 전형적인 난간석주를 발견해 냈는데 이의 크기는 161×64×32cm의 크기였다.

한편 이곳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현덕왕후의 능묘가 현능(顯陵)으로 옮겨지고 이곳이 폐관될때 멀리 바다에 버려진 왕후의 관이 이 우물에 와닿았다고하여 이 우물을 관우물(棺井)이라 부르고 있다.

이 우물은 이 근동에서 가장 밝고 물이 풍부한 우물로 동리 전체의 식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근년에 세멘트로 손질했고 바로 옆에는 수령이 160여년된 향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이 나무는 리의 보호수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한편 단국대학교 발굴단에 의하면 현덕왕후의 능지의 유적에 대해서는 과거 능묘의 유물이고 또 이곳의 동리 이름이 능내라 일컬게 된 연유등을 생각하여 묘역과 주변에 묻혀진 부재(部材) 등을 수습 발굴하여 복원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며 관우물도 전설적인 이야기지만 현재의 원형대로 보존 됐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1 - 17 노루우물 (일명 큰우물)

—노인이 깨우친 이야기—

시흥군 군자면 장곡 2리

연대는 확실치 않으나 전설에 의하면 옛날 큰 우물에 돌로 된 노루가 있었고 (현재도 그들의 일부와 샘이 굉장히 많이 흐르고 있음) 우물 근처에 크나큰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어찌나 욕심이 많은지 거지는 물론 스님이 시주를 청해도 시주는 커녕 목탁과 배낭마저 빼앗아 버리는 고약한 주민이 있었다.

마을에서는 물론이고 근동간에도 많은 옥을 먹고 나쁜 소문이 나있는 터였는데 하루는 아주 잘 아는 고명한 스님이 왔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졌었고 그 옥심장이 부자는 그 스님을 불러 어찌하면 우리집에 동냥어치나 구걸뱅이가 오지 않겠느냐고 물은 즉 스님이 말하기를 당신네 뜰앞에 있는 노루바위를 깨틀어 버리면 다시는 거렁뱅이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주고 가버렸다.

옥심장이는 그 길로 큰 망치를 들고 가서 노루의 목을 쳐서 목이 떨어져 나갔는데 그때 목에서 선혈이 계속 뺏어 올랐다고 한다.

그후 그 집은 점차로 망했고 피가 그치지 않아서 우물의 자리에다 절을 짓고 정성을 다한 결과 피가 멎었다 하며 지금도 그 부잣집터에서는 옛날 기왓장이 출토되고 있으며 옛 절터를 찾아 20여년전에 그 자리에 대안사란 절을 지어 현재 유지되고 있으며 그 절터에서 역시 옛절의 흔적이 출토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도 그 노루의 일부라고 하는 쪽돌의 일부가 우물속 깊이 박혀 있으며 그 우물은 70년 이후 크게 복원하여 공동 빨래터와 10여 정보의 농업용수로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오늘에 까지 어려운 사람이나 거지를 업신여기거나 팔시하면 노루우물 부자처럼 망한다는 얘기가 구전되고 있으며 걸객을 대접하는 미풍이 전래되고 있다.

1 - 18 오이도(烏耳島)

—목마른 임금님이 섬에 물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귀가 번쩍 뜨였다는—

오이도는 시흥군의 유일한 섬이었다.

지금은 염전으로 연결되어 육지가 되었지만. ….

군자면 염전의 끝 오이도는 수인선 군자역에서 염전으로 이어진다.

까마귀의 귀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섬 모양이 까마귀 귀 같아서인지 어쨌던 오이도는 일명 옥귀도(玉貴島)라고도 부른다

옛날 제밀(濟物浦=仁川)에서 임금님이 배를 타고 중국으로 향하다가 팔미도(八尾島) 앞바다에서 조난하여 이 섬에 표류했다고 한다.

임금님이 목이 말라 물을 찾았더니 한 섬사람이 물을 떠 왔는데 그 그릇이 “玉이라” 임금님이 그것을 보고 귀가 번쩍 뜨였다고 해서 옥귀도(玉貴島)라고 이름 지어 졌다고 전한다

어느시대 임금님인지는 모를 이야기지만 이곳에서는 이렇게 전해진다.

1 - 19 갈현리(葛峴里) 찬우물 마을

—정삼품 품계를 받은 우물—

찬우물은 옛이름으로 가자(加賚) 우물이라 일컬었다.

유래는 이조 역대 제왕중에서 극히 효성이 지극하신 22대 정조대왕의 선친 장현세자(莊獻世子 사도세자)를 영조대왕께서 나무상자(쌀뒤주)에 넣어 죽여 수원 화산 용능에 묘를 썼다.

정조대왕께서는 분주한 정사를 틈타 나흘에 한번 꽂로 수원 화산에 있는 선친묘를 찾아 참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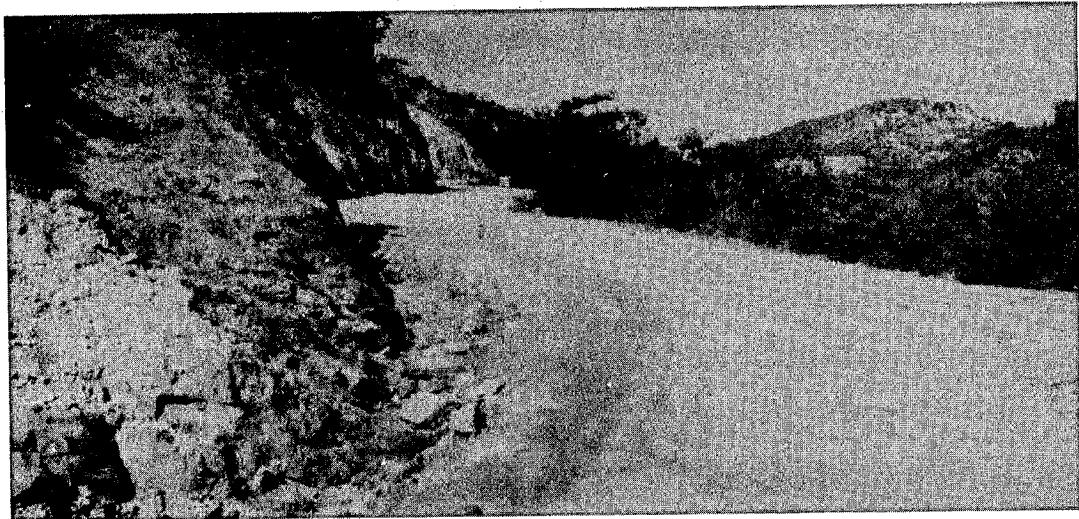
정조대왕께서는 항상 수원 화산능을 가시는 도로가 하나밖에 없는 지라 과천을 통과하게 되었다.

어느 무더운 여름 정조대왕이 수원 용능을 참배하려 과천을 통과하시다 이 마을에 이르자 갈증이 심하시어 신하가 우물에 가서 냉수를 떠서 정조대왕께 올리니 대왕께서 이 물을 잡수시고 참으로 차고 맛이 좋다하시며 찬사를 하셨다.

그후 이 마을 우물물은 차고 맛이 좋다하여 찬우물 마을이라 불려 내려오고 있다.

당시 대왕께서도 이 우물을 가자당상(加資堂上)을 제수(除授) (정삼품 이 상으로 품계를 올려 임금님이 직접 관리하게 한곳) 하시며 이마을 이름을 찬우물이라 불였다.

1 - 20 남태령 (南泰嶺) 고개



현 남태령 고개는 정조대왕이 선친이신 사도세자의 능에 능행하실 때 현 남태령 고개에서 어가(御駕)를 멈추시고 잠시 휴식하실 때 대왕이 이 고개의 이름을 묻자 과천현 이방이던 변씨가 임금님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남태령」입니다. 한바 측근에 있던 변이방을 시기하던 자가「이 고개이름이 옛부터 여우고개로 불리는 바 어찌 상감께 거짓으로 아뢰느냐」하고 변이방을 헐책하자 변이방이 다시 땅에 엎드려 이고개 이름이 원래 여우고개라고 여쭙기가 신하의 도리가 아님으로 임기응변으로 서울서 남쪽으로 첫 고개이기에 감히 남태령(南泰嶺)이라 작명하였나이다」하고 아뢴즉 정조대왕께서 변이방을 칭찬하셨다. 한다.

그후로는 여우고개는 없어지고 남태령으로 부르게 되었으며 대왕의 능행 시마다 이속(吏屬)과 백성이 능행을 칭송키 위하여 무동답교 놀이를 만들어 칭송했다 한다.

1 - 21 문원리 (文原里) 새술막 마을

예로부터 아래 지방에서 한양을 가자면 지금의 수원을 지나 과천을 거쳐 한양(서울)으로 통하는 길만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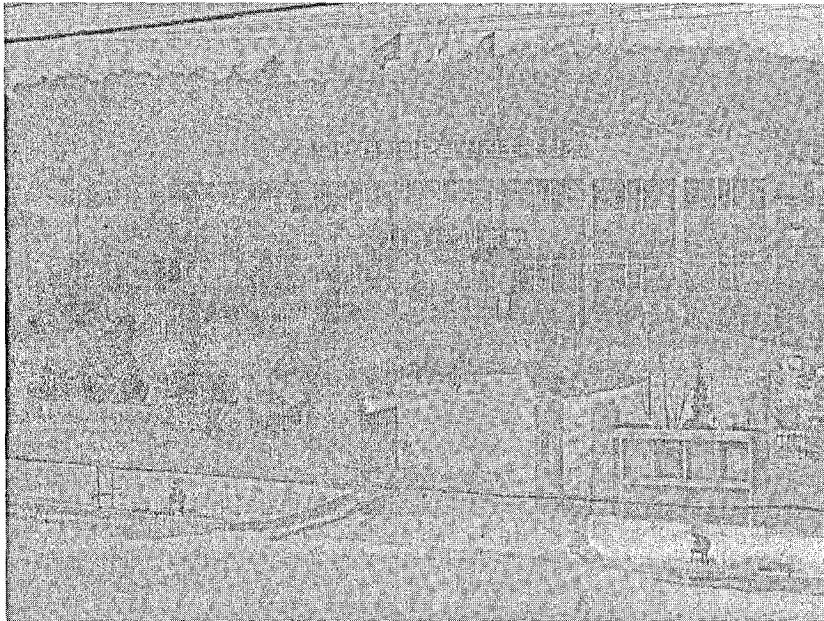
과거를 보러 올라오는 선비들 역시 이 도로를 통하여 한양(漢陽)에 이르렀으니 청운의 꿈을 안고 상경하는 사람, 실내의 쓰라린 아픔을 안고 낙향하는 사람도 과천을 경유하여야 되었기 때문에 과천은 한양의 관문이었다.

관가인 관문리를 내점이라 하고 새술막 쪽을 외점이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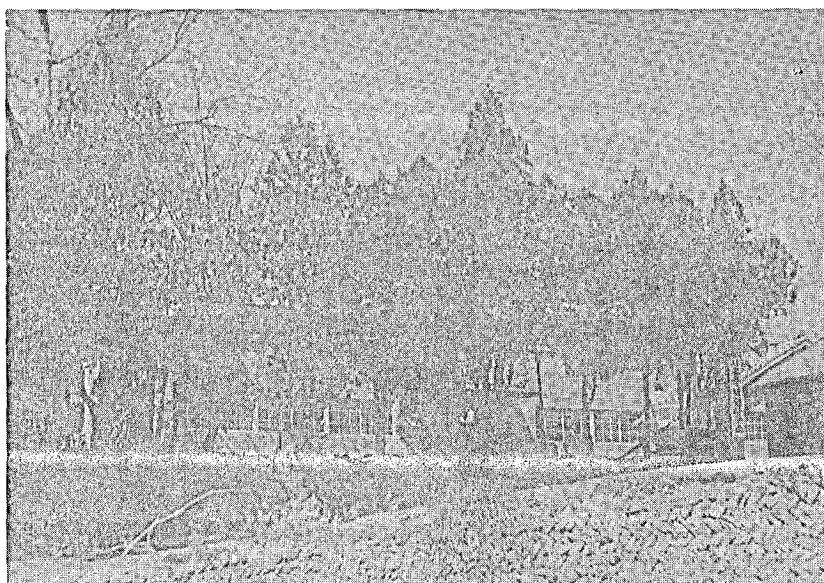
새술막은 내점(현 관문리)을 오기전에 들려 술을 찾는 사람이 많아 술집이 도로변에 많이 생기게 되어 새술막이라 불리웠다.

내점인 관문리에는 현 과천국민학교 위치에 통나무로 된 객사가 있어 한양을 왕래하는 사람들이 하룻밤 쉬어 한양을 찾았다고 한다.

2. 읍·면·마을 유래
2-1 군포읍



現·군포읍 사무소



旧·남면사무소

지명		지명의 종류	유래	
A	B			
군포읍 軍浦邑	읍	읍	본읍은 원래 과천군 이였는데 군합동으로 시흥군 남면으로 되였다가 읍으로 승격되었음.	
금정리 衿井里	리	리	본리는 당초에 우물의 물이 잘 났으므로 물긷는 사람들의 옷을 적신다고 하여 금정이라 함	
평금정 坪衿井	벌금정	부락	본 동리의 위치가 벌판에 자리잡고 있어 평금정이라 함.	
도기촌 陶器村	그릇점	부락	질그릇 만드는 동리라 도기촌 이라함.	
금정 衿井	안금정	부락	물이 많이 나서 옷자락을 적신다고 하여 금정이라 함	
제궁 齋官	재강골	부락	신라시대 청풍 김씨에 제궁이 있었다.하여 제궁이라 함.	
괴곡 槐谷	늦퇴울	부락	본 동리에 괴목나무가 잘 된다고 하여 괴곡으로 부름.	
당리 堂里		리	이 마을은 건설초에 당집을 지어 정성을 드렸고, 그 당집 아래에 있어서 당리로 되었음.	
군포 軍浦		부락	경부선 군포역에 있는 마을이라 군포로 부르게 되었음.	
도내 道内	도램말	부락	본동리 앞에 길이 있었는데, 그 길 안쪽에 있었으므로 도내로 되었음.	

지명		지명 종류	유래	
A	B			
용호		부락	200년전 동네 정씨의 사패지로써 청룡 백호가 환연 했으므로 용호라 함	
龍虎		리	집집마다 우물이 있었으므로 당정이라 함	
봉성	안새전리	부락	본 동리의 형체가 봉이 앉아 있는것 같다 고 하여 봉성이라 함	
鳳城		부락	벌판에 있는 마을이라 평봉성이라 함.	
평봉성	벌새전리	부락	집집마다 우물이 있었으므로 당정이라 부름	
(堂井)		부락		
부곡리		리	농토가 많고, 부자가 많이 있는 마을이라 서 부곡이라 함	
富谷里				
삼성		부락	주씨, 장씨, 곽씨 三性이 동리를 건설하였 다 하여 삼성이라 함.	
三性		부락		
구선말	시홍새오대	부락	아홉 신선이 놀던터가 있었으므로 구선말 이라 부름.	
九仙洞		부락		
부곡	대골	부락	부자가 살았던 곳이라 부곡이라 함	
富谷		부락		
산본리		리	본리는 산밑에 있는 관계로 산본리라함	
山本里		리		
도장동		부락	본동리 앞에 있는 길이 마을에서 보이지 않는다 하여 도장이라 부름	
道藏洞		부락		

지명		지의종류	유래
A	B		
궁 宮	내 内	부	이조 시대에 어느 공선의 궁이 있었다 하여 궁내라함.
광 光	정 亭	부	이조 초에 어느 공신의 정자가 있었다 하여 광정이라함.
곡 谷	란 蘭	부	난초꽃이 많은 곳이여서 곡란이라 함.

2 - 2 의왕읍



現·의왕읍 사무소 1946年 建築

지명		지명의 종류	유래
A	B		
의왕읍 儀 旺 邑		읍	1936년 10월 10일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일왕면 일부(5개리는 수원시로 편입) 및 의왕면 일원을 폐합하여 일왕면의 "일"과 의왕면의 "왕"을 따서 일왕면이 되었으며 1963년 1월 1일 시행된 행정구역 변경으로 의왕면으로 개명되었다가 읍으로 승격되었음.
고천리 古 川 里		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인하여 고물(古井)의 고와 벌사 근내의 '천'을 따서 고천리로 부르게 되었음
고물 古 井	고우물 古 井	부락	옛날 어느 현인이 이곳을 지나다가 목이 말라서 이마을에 유일하고, 오랜 옛날부터 있던 우물에서 물을 마신후(A) 고물이라 부르다가 옛우물이라 하여 (B) 고우물이라 부르고 있음
안내 谷	안풀 部 谷	부락	옛날부터 골이 쑥 들어가 있어서 (A) 안풀이라고 부르다가 어음의 변화로 (B) 안풀이라 부르게 됨.
고고리 古 古 里		부락	옛날 어느 현인이 이곳을 지나다가 오래전의 아득한 옛날부터 있던 마을이라 하여 고고리라 부르게 됨
벌사근천 坪肆觀川	사그내 砂 川	부락	약 159년전 정조대왕께서 화산능에 참배하시는 길에 넓게 보인다 하여(A) 벌사근천이라 하고 벌사근천 비석을 세우셨으며

지명		지명 종류	유래	
A	B			
			근대에 와서는 모래내라 하여 (B) 사그내라 고 부르고 있음.	
내손리 内孫里		리	1914년 능내동과 손동을 합하여 능내동의 “내”자와 손동의 “손”자를 따서 내손이라 한다.	
능 陵 내 內	능 안 부	락	세종대왕의 제4자인 임명 대군의 묘소가 이곳에 있고 그 자손이 대대로 거주함에 그덕을 추모하는 뜻에서 능내라 부르다가 발음변화로 (B) 능안이라한다	
손 蓀 동 洞	손 끌 부	락	옛날부터 이곳에 이상한 쑥이 많아서 “손동”이라 부르게 되었음	
갈 葛 뫼 山	갈 미 부	락	옛날에 흙이 많다 하여 갈뫼라고 부르다가 발음변화로 지금은 갈미라고 부른다.	
삼 리 三 里		리	이조시대부터 신씨가 많이 살았으며 이조 말엽 행정구역 변경으로 광주군에서 수원군으로 편입됨에 따라 삼리라고 칭하게 된것임	
상장의 上莊儀	장 안 말 부	락	이조시대 신씨조상 장령공이란 분이 살게 되어 “장”자를 따서 상장의 하장의로 부르다가 어음변화로 지금은 (B)장안말이라고 부르고 있다.	
철도관사 鐵道官舍		부 락	이조시대 신씨조상 장령공이 사실때 장의동을 하장의 상장의라 칭하였으나 1944년 철도관사를 신축하기 때문에 하장의는 폐동되고 철도 관사로 자연히 부르게 되었음.	

지명		지명 종류	유래	
A	B			
괴槐	동洞	괴말	부락	이조시대 진계군으로 있을때 창고가 있다하여서 괴동으로 칭했으나 어음변화로 (B) 괴말이다 부르게 됨
오전리	五全里		리	1914년 군·면·동 폐합당시 오마동 전주동을 합하여 오전리라 칭하게 되었음.
등곡	谷	등척골	부락	본 부락에는 예전부터 등칡이 무성 하였던 관계로 등곡이라고 칭하다가 (B) 등척골이라고 부르고 있음.
전주동	全州洞	전지남이	부락	예전에 전지남(全地南)이라는 부자가 살아서 본을 따서 전주동이라 부르다가 (B) 지금은 전지남이라고 부르고 있음.
왕곡리	旺谷里		리	약 400년 전에 광주군 지역이였으며 북에 의곡면이 있고 왕륜면이 있었는데 40여년 전에 행정구역 폐합으로 광주군에서 수원군으로 편입됨에 따라 왕륜면의 “왕”자와 의곡면의 “곡”자를 따서 왕곡이라 칭함.
곡사근천	谷肆觀川	곡사그내 谷砂川 (C)풀사그내	부락	약 157년전 정조대왕께서 참배 하시는 길에 골로 된곳에 계곡이 있다하여 곡사근천으로 부르다가 (B) 또 곡사그내로도 부르다가 (C) 근래에 와서는 풀사그내라고 부르고 있음.
통	산	통미	부락	동네 뒷산 봉우리가 둥글게 되었으며 동네 산줄기 밑에 있다고 하여 통산(A)이라 부르다가 근대에 와서는 통미(B)라고 부른다.

지명		지명 종류	유래
A	B		
이리 二里		리	고려말에는 어엽리(魚獵里)라고 칭하였으나 이조말엽 당시 행정 구역 변경으로 광주군에서 수원군으로 편입됨에 따라 “이리”라고 부르게 되었음.
창촌 食村	창말	부락	고려말에 증계골이 있을 당시 창이 있었다하여 창촌(A)이라 부르다가 어음변화로 창말(B) 이라 부름
임교동 林校洞	교동	부락	고려말에 증계골이 있을 당시 향교가 있다고 하여서 임교동(A)이라 부르다가 근대에 와서는 교동(B)이라고 부르고 있음
청계리 淸溪里		리	청계산으로 부터 맑은물이 흘러 동리를 흐르고 있다고 하여 청계리라고 부르고 있음
상청계 上淸溪		부락	청계리의 웃동네라 하여 상청계라고 칭함
하청계 下淸溪		부락	청계리의 아랫 동네에 위치하여 하청계라고 칭함
한직동 漢直洞	한직골	부락	예전에 이곳에 서당이 있어 공부하던 서당 학생들이 한직동이라고 지었다 함.
독정이 獨亭里		부락	옛날에 원이 있었던 정자라 하여 “독정”이라고 부른다 함
포일리 浦一里		리	행정 구역 폐합전에는 포일리와 포이리가 있었는데 1914년 행정 구역을 합한후 포일리로 되었음.

지명		지명의 종류	유래	
A	B			
신기 新基	새터	부락	약 150년전 새로 민가가 생기게 되어(A) 신기라고 부르다가 지금은(B) 새터라고 부르고 있음.	
양지편 陽地便		부락	약 200년전 새로 민가가 생기어 향양 지지의 뜻으로 양지편이라 부르고 있음	
포모루 浦隅	별모루	부락	약 200년전 새로 민가가 생기게 되어(A) 포모루로 부르다가 별모통이에 위치하므로 (B) 별모루라고 부르고 있음.	
삼거리 三巨里	세거리	부락	예전부터 과천과 안양으로 인편이 빈번하다고 해서(A) 삼거리라고 부르다가 근대에 와서는(B) 세거리로 부름	
덕장동 德莊洞	덕장골	부락	옛날부터 부락이 생기여(A) 덕장동으로 부르다가 시대의 어음변화로 지금은(B) 덕장골이라고 부르고 있음	
학의리 鶴儀里		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당시 학현동과 의일리를 합병하여 학의리가 되었음.	
의일외동 義逸外洞	의일逸	부락	세종대왕의 제4왕자인 임명 대군이 객향하신 후 우거하신 현농내동을 의일 내동과 외동으로 나누었고 이곳에서 의를 수하였다 하여(B) 의일이라고 지금은 부르고 있음	
학현동 鶴峴洞	학현峴	부락	속설에(俗說) 위치 학공영(謂知鶴穴映)이라고 함	
월암리 月岩里		리	광주군 관하 월곡이었던 바 서기 1868년 수원군으로 가입됨과 동시에 월암리라 개칭해서 현재에 이룸	

지명		지의명류 종류	유래	
A	B			
대촌 大村	큰말	부락	부락터가 크다하여서(A) 대촌 (B) 큰말이라 칭하게 되었음	
도통 道龍		부락	이조 중엽에 이 지점 도로상에서 통이 승천하였다 해서 도통이라 칭함.	
불정 佛井		부락	이지점 산하에 불상이 유하였고 그 밑 정호가 있는 주위에 부락이 생기어 “불정”이라 칭하게 되었음	
초평리 草坪里		리	이조시대 광주군 관하 월곡면의 일부 이였든바 수원군의 개편과 동시 초평리로 명칭케 되었다.	
상초평 上草坪	웃새우대	부락	부락이 상하로 구분되어 상초평리로 명칭을 붙였음.	
하초평 下草坪	아랫새우대	부락	부락이 상하로 구분되어 하초평리로 명칭을 붙였음	
신촌 新村		부락	1942년부터 신축가옥의 형성으로 명칭을 붙여 신촌이라 했음.	

2 - 3 소래읍



現·소래읍 사무소 1948年 建築

지명		지명의 종류	유래	
A	B			
소 蘇 래 萊 읍 邑		읍	1914년 군폐합으로 인천부가 부천군이 되었고 동년 4월 1일에 면 폐합으로 신현면 전반면, 황등천면이 합하여 소래면으로 되었다가 1980년에 읍으로 승격 소래읍이 되었음.	
금 이 리 錦 李 里		리	미상	
검 의 리 儉 義 里	거 멸	부 락	미상	
도 리 현 桃 李 峴	도 리 재	부 탁	복승아 나무와 오얏나무가 많았으므로 도리재라 칭함.	
방 축 두 防 築 頭	방 축 머리	부 락	방축 연변에 부락이 새로 생긴후 방축두라 칭함.	
진 촌 陳 村	진 말	부 락	미상	
계 수 리 桂 壽 里		리	1930년 계일(桂一)의 "계"자와 수로동(壽老洞)의 "壽"자를 따서 계수리라 칭함.	
구 미 리 九 美 里		부 락	미상	
건 지 정 乾 支 井		부 락	이 지방이 옛날에 너무 건(乾)하였으므로 건지정이라 칭함.	
계 일 桂 一		부 락	미상	
내 동 内 洞	안 골	부 락	안골과 뒤골이 있는 관계로 내동이라 칭함	

지명		지명의 종류	유래	
A	B			
덕석동 德石洞	덕석골	부락	미상	
과림리 果林里		리	과목과 산림이 무성하였으므로 과림리라 칭함.	
모갈		부락	옛날에 목과 동을 동리 사람들이 모갈이라 개칭.	
부라위		부락	옛날 이동리 산허리에 각암이라는 바위가 있어서 부라위라 칭함	
중림동 重林洞		부락	산림이 거함으로 해서 중림이라 칭함.	
탄평동 炭坪洞	솟두르지	부락	미상	
대야리 大也里		리	소래산 밑에 있는 동리이며 면내에서 제일 큰 소래산 밑에 있다해서 대야리라 칭함.	
방아다리	방교 春橋	부락	옛날 이곳에 물방아가 있었다하여 방아다리라 칭함.	
상대야리 上大也里		부락	소래산 북쪽에 있다하여 상대야리라 칭함.	
하대야리 下大也里		부락	소래산 서쪽에 위치하여 하대야리라 칭함.	
도창리 道倉里		리	도두머리의 “도”자와 강창의 “창”자를 선택해서 도창리라 칭함	
강창동 江倉洞		부락	옛날 바닷물이 이 마을까지 들어올때 배에	

지명		지명의 종류	유래
A	B		
			서 짐을 내려 이 동리의 창고에 쌓았다하여 강창이라 칭함
도두머리		부 락	도로가 동리 위로 관통 하였으므로 도두머리라 칭함
점말		부 락	옛날에 그릇을 굽는 점이 있었다 하여 점말이라 칭함
미산리 米山里		리	미곡 생산 지대라 하여 미산리라 칭함
구곡 鳩谷	구시미	부 락	동리가 골짜기에 있다하여 “골자구니”라 칭함.
고기동 古基洞	예터골		옛날부터 집터가 많으므로 고기동이라 칭함
양오재	중엄 中奄	부 락	양과 오리치기에 적당하므로 양오재라 칭함
창동 倉洞		부 락	이조시대에 국가의 창고를 이자리에 두었다 하여 창동이라 칭함.
무지리 茂芝里		리	옛날 황등천면이 폐합됨에 따라 무지리라 칭함
능내동 陵内洞	능안말	부 락	옛날에 능이 있음을 근거로 능내동이라 칭함.
신흥동 新興洞		부 락	약80년전에 신동을 신흥동이라 칭함.
은행동 銀杏洞		부 락	이동리의 은행 나무를 표준하여 은행동이라 함.

지명		지명의 종류	유래
A	B		
매화리 梅 花 里		리	매체기를 표방하여 120년 전에 매화리라 칭함.
매체기		부 락	매화낙지형(梅花落地形)이라 하여 매체기라 칭함.
섬말		부 락	옛날에 이 지대가 바다로 있을때에 섬이었으므로 섬말이라 칭함.
방산리 芳 山 里		리	1909년 방풀과 산우물을 합하여 방산리라 칭함.
고잔동 古 棧 洞		부 락	바닷가에 있으므로 고잔이라 칭함.
마루미	종 산 宗 山	부 락	미상
방골		부 락	미상
산정동 山 井 洞		부 락	옛날에 동리의 산에 정자나무가 있어서 山亭이라 불렸던 것을, 일본인이 이 동리에 찬 우물이 있다 하여 산정(山井)이라 개칭함.
신천리 新 川 里		리	이 동리에 있는 뱜내 하천의 '천(川)'자를 따고 신촌(新村)이라는 "新字을 따서 신천리(新川里)라 칭함.
사천장 蛇 川 場	뱀내장 (C) 장터	부 락	이 동리에 있는 하천이 뱜의 형체로 되여 있다 하여 뱜내장이라 함.
뱀내하천		하 천	하천의 모양이 뱜의 모양과 흡사해서 뱜내하천이라 칭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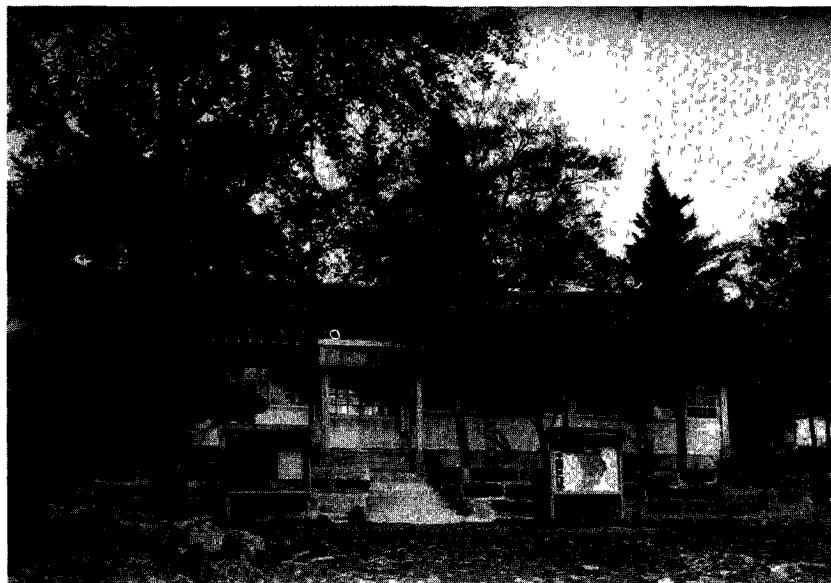
지명		지명의 종류	유래
A	B		
신촌	새말	부락	이 동리가 뱃내장이라는 동리가 있은 후에 새로 생긴 동리라 해서 新村이라 칭함.
안현리 鞍峴里		리	안현리에 길마 같은 산이 있어서 그 고개를 중심으로 하여 안현리라 칭함
가대동 家垈洞	가리말	부락	미상
송내동 松内洞	길마재	부락	구한국 시대 김정승 묘설치시에 그 주위에 산림이 거함으로 송내동이라 칭함.
장낙동 長樂洞	장낙골	부락	지금부터 400년전에 놀이터가 있었으므로 장낙동이라 칭함.
양지동 陽支洞	양지편	부락	햇빛이 아주 잘 쪼여서 따뜻했으므로 양지동이라 칭함
은행리 銀杏里		리	지금부터 50년전에 은행목을 표준하여 은행리라 칭함.
금암 錦岩	금바위	부락	이동리 후편에 있는 바위를 표준으로 하여 금암이라 칭함.
상기동 上基洞	우터골	부락	이 지대가 옛날부터 좋은 집터가 있었다 하여 상기동이라 칭함.
은행정 銀杏亭		부락	이 동리에 있는 은행목을 표준으로 하여 은행정이라 칭함.
한정 寒井	찬우물	부락	동리에 있는 우물이 차다 해서 찬우물이라 칭함.
옥길리 玉吉里		리	이 동리에 옥과 같은 돌이 산에 있다 해서 옥길리라 칭함.

지명		지의 종류	유래	
A	B			
두길동 斗吉洞		부락	미상	
식곡 食谷	식골	부락	미상	
옥연동 玉蓮洞		부락	미상	
함박동 咸朴洞		부락	옛날에 이곳에 처음으로 함씨와 박씨가 살았다 해서 함박이라 칭함.	
포리 浦里		리	이동리가 해변에 있음을 표준하여 포리라 칭함.	
결둑 結築		부락	지금으로 부터 약40년전에 김기봉이라는 사람이 이 둑에 집을 지었다 하여 결둑이라 칭함	
신촌 新村		부락	지금부터 20년전에 이 동리가 일제히 새로 생겼다 해서 신촌이라 칭함.	
새우개 새우개		부락	구한국 시대에 어업이 발전 하였다 해서 새우개라 칭함.	

2 - 4 수암면



現·수암면 사무소



旧·수암면 사무소 1966年 建築

지명		지명의 종류	유래
A	B		
수암면 秀 岩 面		면	지방의 산악에 주봉인 수암봉을 상징하여 수암면이라 정하였다.
고잔리 古 棧 里		리	동리가 해안에 접해 있어서 고잔리라 했음.
원고잔 元 古 棧		부 락	행정구역명이 고잔리에 속한 부락이다.
적금 積 金		부 락	동리 입구 산등에 성황당이 있어 행인이 돌을 모아둔 돌속에서 금덩어리가 나왔다. 하여 적금이라 칭함
당곡 堂 谷		부 락	약100년 전에 어떤 소녀가 당을지어 놓고 부모의 명복을 빌었다 하며 그후부터 부락 이름을 당곡이라 부름.
광석리 廣 石 里		리	동리 앞에 넓은 들판이 있어서 광석리라 하였다.
나분들 元 廣 石	원광석 元 廣 石	부 락	행정 구역명이 광석리에 속한 부락이다
둔대곡 屯 垡 谷		부 락	상동
능곡리 陵 谷 里		리	이조 광해군 시대에 영상(領相) 유부원군의 묘소가 이곳에 있어 능곡이라 칭함.
삼거리 三 巨 里		부 락	동리마을 앞에 인천과 서울로 통하는 구길이 삼각형으로 놓여 있어 동리명을 삼거리라 하였음.
두杜 일 日		부 락	이 마을이 산골짜기에 있었기에 임진왜란 때 아군이 진을 치고 동리앞을 행군하는 일군을 쳐서 막았다 하여 두일이라고 부름

지명		지명의 종류	유래
A	B		
논곡리 論 谷 里		리	이조 중엽에 대신이 이 마을에 살았다 하며 때때로 중신들이 이 마을에 모여 국사를 의논하였다 해서 논곡이라 칭함.
논곡 論 谷		부 락	행정구역명이 논곡리에 속한 부락이다.
물왕리 物 旺 里		리	옛날 이고장은 특히 수목이 울창하였다 하며 만물이 왕성하다는 의미에서 물왕리라고 칭함.
물왕골		부 락	행정구역명이 물왕리에 속한 부락이다.
월미 月 尾		부 락	마을 뒷산이 반달같이 되었고, 산세에 따라 마을이 형성 되었으므로 월미라 칭함
목감리 牧 甘 里		리	옛날 이 지방에 목암사라는 절이 있어서 지명을 목감리라 칭함
목암 목 암	모 감	부 락	행정구역명이 목감리에 속한 부락이다.
율포 栗 浦		부 락	옛날부터 율목이 많고, 밤이 많이 생산되는 마을이라 하여 유포라 한다.
부곡리 釜 谷 里		리	이 지방 지형이 복부형 즉 가마솥을 뒤집어 놓은 형이라 하여 부곡리라 칭함
원부곡 元 釜 谷	가며울	부 락	행정구역이 부곡리의 일부 부락임.
벌터		부 락	약 50년전에 벌판에 민가가 새로 생겨 벌터라 칭함
신촌 新 村		부 락	행정구역명이 부곡리의 일부 부락이다

지명		지명의 종류	유래
A	B		
수암리 秀 岩 里		리	마을 뒷산 봉우리가 돌로 되여 있어 이산을 수암봉이라 하였는데 산밑에 동리가 형성되어 산명을 따라 수암리라 하였다.
안산 安 山		부락	한일 합방을 전후하여 안산군청이 이 부락에 있었는바, 군청 소재지라 하여 안산이라 칭하였다.
산현리 山峴 里		리	글자 그대로 동리 부근에 큰산고개가 있다하여 산현리라고 정하였다
원산현 元 山 峴	묘재	부락	행정구역이 산현리에 속한부락이다.
생곡 生 谷		부락	상동
성포리 聲 浦 里		리	이 지방은 옛날부터 포구로서 선박이 왕래하고 사공의 배노래가 그치지 않는다 하여 성포리라 하였다.
성머리 城 頭 里	성두리	부락	이 부락은 포구였든바 지금은 염전이 생겨 포구가 없어졌음.
점성 占 星		부락	행정구역이 성포리에 속한다.
양상리 楊 上 里		리	이 지방 산 형세가 앵서유지임 즉꾀꼬리가 버드나무에 것을 드리웠다 하여 양상리라 하였다
상양대 上 楊 垈		부락	행정구역이 양상리에 속한 부락이다
하양대 下 楊 垈		부락	상동

지명		지명 종류	유래
A	B		
월피리 月陂里		리	동리복판에 언덕이 있어 매년 구정 15일에 달맞이를 하며 당년 흥풍을 판단하였다 하며 이언덕을 중심으로 하여 월피리라 칭함
달이리		부락	행정구역이 월피리에 속한 부락이다.
부로지 富老志		부락	행정구역이 월피리의 일부 부락이다.
와리 互里		리	1913년 행정구역 폐합 당시 와리라고 제정함
동작雀 銅雀		부락	행정구역이 와리의 일부 부락임
신촌 新村		부락	최근에 민가가 새로 생겨 신촌이라 함
전촌 前村	암술	부락	행정구역이 와리의 일부 부락임.
왜두들기		부락	상동
장상리 獐上里		리	이 지방에 산 형세가 노루형이라 하여 노루장(獐)자의 “장”자를 따서 장상이라 함
동마골 東谷		부락	수암봉 동쪽 골짜기에 마을이 있어 이지방 주민들은 동곡 또는 동마골이라 함.
장곡 獐谷	노리울	부락	부락의 뒷산 모양이 노루형이라 하여 장곡 또는 노리울이라 한다
장하리 獐下里		리	이지방 산세가 노루형이라 하여 노루장(獐)자의 “장”자를 따서 장하리라 하였다
벌坪 村		부락	약100년전에 벌에 민가가 생기게 되여 벌말이라 부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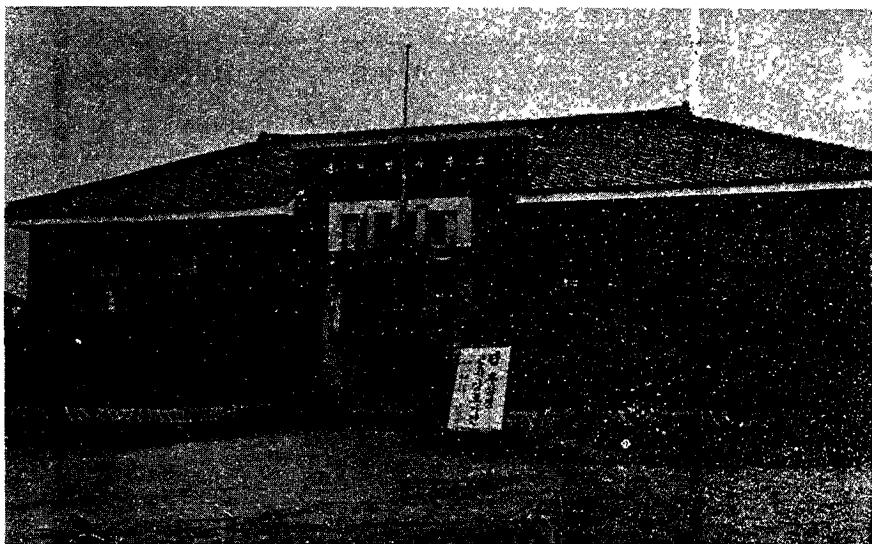
지명		지의명 종류	유래	
A	B			
원院	뒤后		부 락	행정구역이 장하리의 일부이다
조남리 鳥南里			리	산형세가(비조투루)형 즉 나르는 새가 수풀로 뛰어든다는 모습이라 하여 새조(鳥)을 따서 조남리라 하였다
장군곡 張君谷	장군재	부 락		이조 효종대왕이 국구인 장부원군의 묘소가 이곳에 있어 부락이름을 장군곡 또는 장군재라 부르고 있음.
남왕 南旺		부 락		행정 구역이 조남리의 부락이다.
원조남 元鳥南	새미	부 락		행정 구역명을 조남리를 본따서 원조남 또는 새미라고 부르고 있다.
소능메 小陵山		부 락		적은 능을 중심으로 하여 부락이 생겨 소능메라고 한다.
방화 訪花		부 락		부락 지형이 나비가 꽃을 찾는 형국이라 하여 방화 또는 방화고개라 칭하게 되었다.
을미 乙尾		부 락		부락 뒷산 모양이 새가 꼬리를 감춘것과 같다하여 을미라고 한다
화정리 化井里		리		동리안에 큰 우물이 있는데 옛날에 이 우물에 꽃이 피었다 하여 화정리라 하였다
고주멀 元花井		부 락		행정구역명이 화정리를 본따서 원화정 또는 고주멀이라 한다
너비울 廣谷		부 락		부락이 넓은 골짜기에 있다하여 광곡 또는 너비울이라 부르고 있음

지명		지명의 종류	유래
A	B		
태봉	봉	부 락	옛날 이곳에 태자의 태를 산에 묻었기 때문에 태봉이라 부르고 있음.
가래	울	부 락	행정구역이 화정리의 일부 부락임
하중리	下中里	리	1913년 행정구역 폐합 당시 하중리라고 정하였다.
관곡	곡	부 락	옛날에 관전이 많이 있던곳이라 하여 관곡이라고 함.
새터	터	부 락	약50년전에 새로 민가가 생겨 새터로 부르고 있다.
샌말	間村	부 락	부락과 부락 사이에 마을이 있다하여 간촌 또는 샌말이라 한다.
하상리	下上里	리	1910년 행정구역 폐합 당시 하상리라고 정하였다.
상직	上職	부 락	행정구역이 하상리의 일부부락이다
하지	꼴	부 락	상동
고잔역전	古棧驛前	부 락	간척지 공사 관계로 난민들이 대거 입주하여 부락이 발달 하였는데 지명을 따서 고잔역전이라 부르게 되었음

2 - 5 군자면



現·군자면 사무소



旧·군자면 사무소 1951年 建築

지 A	명 B	지의 종류	유래
군자면 君子面		면	1914년 3월 군구분합시 안산군의 반부인 와리, 대월, 마유에 삼개면을 합하여 군자면이 된것이며 면명인 군자는 면내 수봉인 군자봉에서 군자를 딴 것임.
거모리 去毛里		리	원래는 검호라 칭하였다 하며 거모리로 개칭하게 된것은 일제초부터 라는데 지형상 터럭과 같이가늘고 길다하여 거모리라 개칭한 것임.
석곡 石谷	도일	부락	옛날에 이곳을 돌곶이라 칭하였으며 (혹청 도일) 석곡은 돌곶을 한자로 칭하는 것으로 지금에 와서는 누구나 석곡으로 부르고 있다.
내곡 内谷		부락	약 30년전에 생긴 부락인데 석곡부락의 안마을이라는 데서 내곡이라 칭하게 된것임.
주정 舟井	뱀물	부락	예전에 바다의 조수가 이곳까지 들어왔으며 선인들의 음료수를 이곳의 우물에서 걸러다 먹었다 하여 주정이라 한것임
금호 錦湖		부락	이곳 뒷산이 옥녀봉으로서 이 옥녀가 짠 직조비단을 이곳의 우물에서 헹군다 하여 금호라 부름
사미 糸美		부락	옥녀가 직조하는 실꾸리에 위치한다 하여 비단실을 상상하고 사미라 부르고 있음

지명		지의명류 종류	유래	
A	B			
군자리 君子里		리	군자리 중심지에 면내 제일 높은 군자봉이 있어 이 산명을 따서 군자리라 칭한것임.	
아래말 下 卑		부락	구지정 동리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 구지정에 비하여 아래말이라 칭한 것임.	
구지정 九芝井	구지물 九芝水	부락	띠바위에 우물이 아홉개 있는곳이라 하여 구지정이라 한것임.	
양지편 陽地便		부락	이곳은 산간지로써 양지쪽에 위치한다 하여 양지편으로 부르게 되었음.	
산북 山北		부락	산은 군자봉을 말하는 것으로 이곳이 군자봉 북편에 위치한다 하여 산북이라 칭함.	
셋터말 三 舍		부락	약30년전에 생긴 부락으로서 당시 새로생긴 부락이라는 뜻으로 셋터말이라 부르는 것이 지금에 와서도 역시 셋터말이라고 부르고 있음.	
목내리 木内里		리	목내리는 이리내에 이목과 능내 두 부락이 있어 이목에 '목'과 능내에 "내"를 따서 지명을 목내라 한다.	
능내 陵内		부락	이마을 옆산에 단종왕의 어머니 능이 있었기 때문에 능안말이라는 뜻에서 능내라 부름.	
이목 梨木	배나물 banana	부락	이곳은 배나물이라고도 부르는데 실제로 배나물이 옳다고 보는 것은 이지점이 배를 내는 곳이라는 뜻이기 때문임. 그러나 이 뜻은 사라지고 배(船)가 배(梨)로 변하여	

지명		지의명 종류	유래	
A	B			
			나물이 나무(木)로 변하여 이목이 된것임	
선부리 仙府里		리	이곳은 면내 제일가는 산악지로써 그 산 새가 화려하다 함과 동시에 실로 선경을 이루었다 하여 선부리라 칭한것임	
관 冠 산 山	갓 모 산	부 락	이곳 뒷산의 모형이 갓모같다하여 갓모산 이라 칭하고 관산은 한자 발음으로 고친 것임	
셋 터		부 락	약 15년전에 생긴 부락으로 새로 생겼다 하여 셋터라 부른것임.	
정 지 촌 正 芝 村	정지마굴	부 락	예전에 행군하는 기마병이 쉬여갔다는 뜻 으로 일명 정지마(停芝馬)굴(谷)이라고 도 부르는데 어떤 이유인지 지금은 모두 들 정지촌이라고 부르고 있는바 이는 전 지를 한자음으로 하고 굴을 촌(村)으로 한 것같음.	
석 수 굴		부 락	이곳은 돌이 많은곳으로 석(石)수(数)굴 (谷)이라 칭한것임.	
달 미 達 美		부 락	달산은 원래 달(月)뫼(山)로서 이곳地形이 月形이요 그곳에 산소(墓)가 있다고 하여 달산이라 하였는데 지금에 와서는 달산이 달미로 불리우고 있으며 달산이라면 누구 나 아는이 없음.	
우 산 이 隅 山 伊		부 락	산 구석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우산이(隅 山伊)라 칭한것임	

지명		지명의 종류	유래
A	B		
대재이 大 壮		부 락	대재이는 그 지형이 대장형이라 하여 대장리라 불리였다 하나 언어의 변화인지 지금은 대장리라 하는이 없고 모두 대장으로 부르고 있음.
성곡리 城 谷 里		리	이곳은 본면 남부 해안을 둘러싼 곳으로 내륙은 평야이고 해변으로 산맥이 돌아가 전부 성을 쌓은 형용이라 하여 성곡리라 칭하게 된것임.
무들坪 茂 坪		부 락	이곳은 초목이 울창하고 산수가 좋은 곳으로 무성한 들이라 하여 무평이라 부름
별말 별 말		부 락	성곡리 중앙지점 벌판 가운데 있는 마을이라 별말이라 부르게 된것임
안말 安 말		부 락	별말에 비하여 산밑에 위치하고 있어 안동내라는 뜻에서 안말이라 부르게 된것임
돌안말 돌 안 말		부 락	안말에서 볼때에 이곳이 옆으로 돌아가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속칭 돌안말이라 한것임.
골안말 골 안 말		부 락	이곳은 산과 산사이에 굴속같이 들어가 있으므로 굴을 산골이라 하여 골안에 위치한다는 뜻에서 골안말이라 함.
장가물 祭 堂		부 락	이곳은 수원(水源)이 없어 매양 농작에 걱정을 하는 곳으로 언제나 (장)가문다하여 (阜拔) 장가물이라 부르게 된것임.
신길리 新 吉 里		리	이리내에 잔얼부락중 신각과 능길이 있는데 신각의 “신”과 능길의 “길”를 따서 신

지명		지명 종류	유래	
A	B			
			길이라 부르게 됨	
새 新	뿔 角	부 락	이 동리는 지형이 우형각(牛形角)이라는 뜻에서 각을 쓴것이고 이새(新)는 오래된 뿔보다는 새뿔이 장래성이 있다하여 새뿔이라 함.	
선 船	곡 谷	뱅 골	부 락	예전에 배가 이곳까지 들어왔다 해서 배골이라 한것임. 그러나 그후 발음상 뱅골이 되었으며 선곡은 한자 속칭임.
능 陵	길 吉		부 락	풍설에 의하면 이곳에 고래능이 있었고 이능이 언제인지 퇴하게 되자 그후 이 마을이 생기는 동시에 그 주민이 매우 평화롭게 살았다하여 능길이라 속칭한 것임.
성 成	안 内		부 락	이곳 뒷산마루가 흡사 성안 같으며 이산마루에 인도가 있는 것으로 성아닌 성이라 그 안에 마을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속칭 성내라 함
풍 豐	전 田		부 락	이곳은 토질이 비옥하여 매년 풍작을 보는 고로 풍작의 밭이라 하여 풍전이라 부른 것임
별 別	데 堂		부 락	이곳은 풍전마을 뒤에 위치하여 마치 한집의 별당같다 하여 속칭 별당이 된것이고 별데이는 언어변화로 된것임.
원 元	곡 谷		리	원곡리는 옛날에 원상이라고도 부른일이 있어 그 원(元)자와 목곡에 곡(谷)을 따서 원곡이라 칭함.

지명		지명 종류	유래
A	B		
양곡 陽谷	양지말	부락	이마을 위치가 태양에 면하고 있다하여 양지말이라 부르며 양곡은 한자 발음인
모곡 茅谷	띠골	부락	이곳에 띠(茅)가 무성하여 띠마을이란 뜻에서 띠골이라 하며 茅곡은 한자 발음임. 그리고 원곡리내에 한부락이므로 “리”는 삭제 하여야 타당한 것임
신홍촌 新興村		부락	1937년중에 신생한 마을로써 신생촌이라는 뜻에서 신흥촌이라 한것임.
신촌 新村		부락	1952년 피난민촌에서 신생한 마을이므로 신촌이라 한것임.
원시리 元時里		리	이곳을 예전에 원하라고 부른일이 있어 그 원(元)과 시우에 시(時)를 따서 원시리라 한것임.
풍곡 楓谷	옻나무풀	부락	이곳에 옻나무가 많아서 옻나무풀이라 불렀는데 이 옻나무는 지금에 와서 한나무도 없으므로 옻나무보다 단풍나무가 많으니 풍곡이라 함이 좋을것이라 하여 약30년 아래로 풍곡으로 부르고 있음
시우 時雨		부락	시우는 산곡에 위치하여 농작하는데 수분이 매우 좋은 지대임. 이곳은 언제나 물이 장마진것처럼 흐르고 있으므로 그 풍부한 수량에 비하여 시우라 속칭한 것임
범직 凡直		부락	옛날 이곳에 범이 자주 나타나 범직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에 와서 범(凡)직이라고 함은 세월의 흐름과 같이 언어의 변화로

지명		지명의 종류	유래
A	B		
			무릇범자 범직으로 된것임
월 곳 리 月 串 里		리	월곳리는 그 지형이 반달 같으며 더욱 그 중간을 길게 냇물이 흐르고 있으므로 이 지형을 형용하여 월곳리라 칭함.
마 전 麻 田	삼 받 이	부 락	예전에 이곳에 삼을 많이 경작하였다 하여 삼밭이라고 불렀으며 마전은 한자음임.
통 심 이		부 락	이곳은 예전에 통심이란 사람이 혼자 살았는데 그후 동네 간안 고지명이 통심이가 되었음
별 감		부 락	이곳은 마전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마을인데 원래는 한 부락으로 부르던 것이 차차 가구가 늘어지자 마전과는 아주 따로 지명을 부르게 되어 다른 마을이라는 뜻에서 별감이라 속칭한 것임
월 동 月 東		부 락	월곳리 동편에 있다하여 월동이라 칭한 것이며 이는 부락명이지 행정구역명이 아님
별 말		부 락	들 가운데 있는 마을이라 해서 별말이라 칭한 것임.
상 곡 祥 谷		부 락	이곳은 예전에 큰 상들이 있었다하여 상돌골이라는 뜻에서 상곡이라 부름.
궁 꿀		부 락	이곳 지형이 궁(弓)형으로 골목고개에 이르렀으므로 지형을 형용하여 궁꿀이라 속칭한 것임.
응 고 개			예전에 어느 사람이 아들 하나를 데리고

지명		지의명 종류	유래	
A	B			
		부 락	얼어먹고 다니다가 그 아들이 병이 들었음 인지 이 고개에서 죽자 그 아비는 수일을 먹지않고 엉엉울고만 있다가 결국 그자리 에서 죽었음, 그래서 이 고개를 응고개라함.	
우목풀		부 락	장곡과 고잔간에 빈번이 왕래하는 길에서 우목히 옆으로 마을이 들어 앉았다하여 우 목풀이라 칭함.	
고잔		부 락	예전 인천 왕래시 이곳에서 배를 타고 떠 났다하여 속칭 고잔이라 칭하게 된것임.	
구능뿌리		부 락	이마을 앞산에 예전에 구능(口陵)이 있었 다하여 구능이라 하고 뿌리는 모퉁이라는 뜻이 있으므로 구능이 있는 산 모퉁이 즉 구능뿌리가 된것임.	
조구나리		부 락	예전에 이곳에 조씨라는 나리(칭호)가 살 고있어 이곳을 조나리라고 불렀다하며 이 일이 옛일이라 “조”자 다음에 “구”자 를 넣어 조구나리라 한것임.	
이호정		부 락	최근 신생부락으로 집두채 우물 한개가 있 는 곳이라 하여 이호정이 된것임.	
二戶井		부 락	독립된 산(예전에 섬이라 함)에 마을이라 하여 섬산이라 칭함.	
장곡리		리	영홍이라는 영(永)을 장(長)으로 응곡이라 는 곡(谷)을 따서 장곡리라 한것임.	
長谷里				
응곡	매풀	부 락	응곡은 그 앞산이 매와같은 형상이라 해 서 매골 또는 한자음으로 응곡이라 칭함	

지 A	명 B	지 종 의 류	유 래
안 内 내	꿀 谷	부 락	이곳은 응곡 마을에 비하여 안동내라는 뜻에서 안꿀이라 칭함.
신 新	촌 村	부 락	소래 염전 개설당시 이 공사장의 노무원들이 새로 동리를 만든 마을 인바, 새로 생긴 마을이라 하여 속칭 신촌 이라 한것임.
영 永	홍 興	부 락	동내 위치가 응곡 마을앞에 높이 솟은(마루태기)곳에 길게 자리잡고 있어 이를 긴 마루라 부르며 영홍에 “홍”은 마루라기보다 영구적으로 응홍 한다는 뜻에서 마루(宗)을 빼고 홍(興)을 넣어 영홍이라 칭함.
섬 島	말 村	부 락	예전에 이곳까지 조수가 들어와 이마을은 완전한 섬이였다 하며 이섬에 자리잡은 마을이라 하여 섬말이라 칭함.
장 長	현 峴	리 리	장현리 내에 있는 자연부락인 조현이나 두일이나 이 부락을 가려면 어느곳이고 긴재(峴)을 넘게 됨. 그래서 긴재라는 뜻으로 장현리라 함.
새 鳥	재 峴	부 락	이곳은 고개 넘어 있는 마을로 옛부터 참새가 많이 모인곳으로 속칭 조현 또는 새재라 부름.
두 杜	일 日	부 락	이 마을은 같은 두일이면서 두군데로 나누어진 부락인데 앞뒤산이 높이 솟아 있는고로 해뜨자 지는 현상이다. 그래서 산이 태

지명		지명 종의류	유래
A	B		
			양을 막는다는 뜻에서 두일이라 칭함.
정왕리 正往里		리	예전에 이곳은 봉화산 관계로 나라에서 지극히 중요시한 것이며 여기 왕래하는 사람이 모두 공직자로서 아마 그사람을 정인(正人)이라 하고 왕래함을 가르켜 정왕리라 칭함.
사랑浪 沙		부락	예전에 조수가 이곳까지 들어와 이마을 산밑은 흰 세사(細砂)로 덮이였다하여 사랑이라 부른것이며 사랑은 사월부락 이므로 리(里)는 삭제되어야 함.
삼안 三安		부락	예전에 삼형제가 그부모를 가난한 살림에도 극진이 효를 드린바 그부모 구몰 이후 이 삼형제는 전에 가난을 벗어나 부자가 되어 편안히 살았다 하여 이곳을 삼안이라 칭하게 된것임.
함줄 咸絃		부락	이곳은 배닻줄 놓는 곳, 즉 쉬는곳으로 함(咸)줄은 함(艦)줄이 맞는 것이나 그 누구도 모르는 사이에 함(咸)줄로 변한것임.
요오굴 요오굴		부락	이곳은 함줄부락에서 요하니 들여다 보이는곳에 있다하여 요오굴이라 칭함.
뒤방울 後房谷		부락	뒤방울은 사랑부락 뒤산넘어 위치하였으므로 사랑에서 볼때에 뒤산 굽짜기라는 뜻으로 뒤방울이라 칭함.
봉현 烽峴	봉화재	부락	이곳의 뒤산이 봉화산이므로 봉화를 연상하여 봉화재라 하는 것이며 봉현은 한자 발음임.
높은어물 高井		부락	고정은 이곳 우물이 높이 있었다 하여 높은어물 또는 고정이라 함.

지명		지명 종류	유래
A	B		
배나루 船 帛		부 락	예전에 이곳에 배(船)가 들어왔다하여 배나루 또는 선진이라 부르게 된것임
아래평안촌 下平安村		부 락	아래 평안촌과 평안촌은 다같이 平安道 사람들이 군자염전 개설당시 노무자로 들어와서 이 해변에 새로 마을을 일으킨 것 이므로 속칭 평안촌이라 함.
염부사 鹽 夫 舍		부 락	군자염전 종업원인 염부들이 사는 곳이므로 염부사라 함.
굴뚝촌		부 락	이곳은 왜정말에 니가리 공장이란 공장을 새우다가만 굴뚝이 있는데 전편 전란시 피난민들이 이 굴뚝을 주택으로 이용하였다하여 굴뚝촌이 된것임.
옥구도 玉 鉤 島		부 락	이 섬에서 전에 수정을 딴 필경玉은 이 수정을 말하는 것이며 鉤는 이곳에서만이 낚시질을 하는고로 鉤을 넣은것 같음. 이래서 섬명이 옥구도요. 부락명도 역시 옥구도가 된것임.
오이도 鳥 耳 島		부 락	오이도는 까마귀가 많이 모이는 곳으로 오이도라 한것임
살막		부 락	이곳에서 매는 살주인(여업)이 사는 곳이라 하여 살막이라 부르고 있음.
고줄리		부 락	배닷줄을 높이 놓는곳 즉 정박하는 곳이라 하여 고줄이라고 부르나 지금은 정박하지 않음.

지명		지의 종류	유래	
A	B			
죽률리 竹栗里		리	죽률리는 예전에 대암이라고 부르고 있었는데서 대(竹)를 따고 이곳은 웬일인지 밤(栗) 나무가 되지 않는다해서 룰(栗)을 넣어 죽률리라 한것임.	
정촌 正村		부락	이곳 사람은 누구나 성질이 온순하고 정직한것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므로 정직 정당한 곳이라 하여 정촌이라 함.	
새말 새말		부락	이 마을은 약30년전에 생긴 부락이건만 새로 생긴 부락이라는 뜻에서 여지껏 새말이라고 부르고 있음.	
대답 大番	한배미	부락	이곳은 한배미 즉 큰논 한배미라는 뜻에서 한배미 또는 대답이라고 칭하는 곳임.	
대촌 大村	큰말	부락	죽률리 중에서 제일 먼저 생긴 부락이고 지금까지도 제일큰 마을이라 하여 큰말 또는 대촌이라 부름.	
초지리 草芝里		리	이동리는 산야지로 풀이 무성한 곳이라는 뜻에서 초지리라 한것임.	
원당 元堂	둔배미	부락	이곳은 예전 포촌이였는데 해신 신신에게 제사를 이곳에서 하게 되었으며 이곳 당(堂)이 제일이라 하여 원당이라 부르는 것이며 지금은 완전히 포촌이 아니므로 원당포라 하지않고 원당이라 부르는것임.	

지명		지의종류	유래
A	B		
백중 白中		부락	이곳에 예전에 중이 100명 살았다 하여 백중이라 부르는데 아마도 白中은 이유불명에 동음변천이라고 밖에 볼수 없음.
초지 草芝		부락	산초와 띠(芝)가 무성한 곳이라는 데서 초지라 하는것임.
하나꼴		부락	예전에 어느사람이 이곳에 살았는데 대단히 정직한 사람이라 무엇을 나누던지 하나을 즉 하나씩 공정히 나눈다는 뜻에서 하나꼴이라는 말을 썼으므로 이것이 동요가 되여 이사람이 산곳이라 소지명을 하나꼴로 부르게 됨.
별망 別望		부락	아득한 옛날에 외국 침략을 막기 위하여 병사가 이곳에 주둔하여 바다를 바라보고 경계한 곳이라 하여 속칭 별망이 된것임.
염전 鹽田		염전	1949년에 창설된 사설염전으로 약 23정보의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명칭을 아산 염전이라 하였으니 이는 이조때 이곳 군(郡)명을 딴것이다.

3. 옛생활 (生活)과 풍속 (風俗)

3-1 당 제 (堂 祭)

—풍어와 안전한 귀환을 비는 민속적 종교행사—



시흥군 소래읍 포리에는 당(堂) 집이 있고 지금도 매년 음력 정월초순과 7월 초순에 당제를 지내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여년전만 해도 이 당제를 지낸 후에는 전 부락민이 모여 상당히 큰 규모의 도당(都堂) 궂을 했다고 한다.

이 마을은 20여년전만 해도 대다수의 주민들이 어업에 종사했었다.

이 어부들이 40여일간 어로작업을 하고 아무런 사고없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궂이다.

주민들 간에는 초자연적인 신앙이 뿌리깊어서 무당의 말은 거의 절대적이었고 만약 무당에게 나쁜 감정을 표시하면 무당은 동네에 다니면서 악담을 하기 때문에 모두들 무당의 비위를 건드리지 못했다고 한다.

이 포리 마을에서는 당제(堂祭)를 지내기 15일 내지 20일 전에 부락민 중 50세~70세의 노인들이 모여 당제를 지낼 제주(祭主) 1명을 선출한다.

이 제주 후보자의 자격은 우선 그의 몸이나 그의 가정에 부정한 것이 없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그의 집안에 상을 당했다거나 부인이 월경기에 있다거나 그의 집안사람중에서 누가 병환중인 경우에는 제주 후보자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선출된 제주는 수를 보아서 좋은 날을 성해 제삿날을 정한다.

그리고 또 제주를 도와 줄 사람 4명을 더 뽑는다.

물론 이들도 제주의 자격과 마찬가지로 본인과 집안에 부정한 것이 없어야 한다.

이와 같이 제주와 제삿날이 확정되면 마을 사람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마을의 출입을 금한다.

그리고 제주의 집 문지방엔 황토를 칠하여 부정한 사람의 출입을 금한다.

이때 당제에 사용한 2개의 우물에는 물을 모두 퍼내고 특별히 우물안과 주위를 청소한다.

그리고 청소한 후의 우물은 당제가 전부 끝날 때까지 주민들의 사용이 일체 금지된다.

또한 이 당사(堂舍) 옆에는 약 500년 묵은 은행나무가 서 있다.

이 은행나무는 이 마을 앞에 위치한 군자면 오이도에서 몰려오는 액운(厄運)을 막기 위해서 마을 뒤 언덕인 당사옆에 세워진 것이라고 마을사람들은 말하고 있다.

제주는 제삿날 전날 목욕을 깨끗이 하고 속세의 모든 부정을 씻어낸다.

따라서 제주와 그를 돋는 4명의 보조자들은 첫날부터 3일간 당제가 끝날때까지 당집에 머무르게 된다.

이 당제기간에는 마을 사람들을 일체 당집 근처에 머무르지 못한다.

제주와 4명의 보조원들은 첫째날 당집에 들어가 청소하고 제사 음식을 만들고 제사준비를 한다.

둘째날에는 그들을 “조라”라는 감주 비슷한 술을 만들어 저녁에 당에 갔다 바친다.

이 당제는 이 “조라”술 이외에는 어떤 술도 쓰지 않는다.

셋째날에는 인적이 완전히 그친 후 새벽 1시쯤 지성을 드렸다고 한다.

이 당제사때 되는 24그릇을 올린다고 하는데 그것이 왜 24그릇인지는 알 수가 없다고 한다.

이 당제가 끝나면 제주와 보조원은 제사때 쓴 고기와 모든 음식들을 마을내의 가구수대로 나누어 모든 집에 조금씩이나마 신에게 바친 음식을 모두 음복(飲福)하게 하였다.

그러나 현재 이 포리마을에서 도당(都堂)굿은 완전히 사라지고 지금도 당제만을 극히 간소하게 거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3-2 무동답교 (無童踏橋) 놀이

—우리 고장 고유의 민속놀이—

옛부터 과천면 지방에는 고유의 민속놀이로서 무동답교놀이가 있었다.

이 민속놀이의 창시는 조선 22대 정조대왕시에 시작되었다고 한다.

정조대왕께서는 선친이신 사도세자께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것을 생각하시어 화성에 웅릉(隆陵)을 모시고 성묘차 능행을 자주하셨다.

정조왕께서 능행하실 때 대왕의 능행을 위하여 부락민들이 무동극을 창설하여 능행시의 환영과 환송을 거듭하니 대왕이 높게 칭찬하시어 한때는 경향각지에서 인기가 대단히 좋았다고 전하여 진다.

과천지방의 무동행사는 매년 정월에 일년의 액운을 막고 풍년을 기원하

PAGE 누락